

올해 하반기 바뀌는 보건 의료 법·제도

임신·출산 건강보험 보장 확대
5가 혼합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보건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 의료 법·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올해 12월 3일부터 담주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지역으로 추가된다. 기존에는 공중이용 체육시설 중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담주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에 위치한 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 = 올해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장치 강화 = 올해 5월부터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더욱 보호됐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시킬 수 있어 악용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의 적합성을 여러 단계에서 볼 수 있도록 강제입원 절차를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은 최대 6개월이었던 기간제한을 없애 실효성을 높이고, 꼭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임신·출산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오는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조산·사산 및 유산한 사람으로 확대된다. 유산을 했거나 출산한 이후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으나, 임신상태가 종료(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된 출산,

유산 등의 경우에도 신청·지원이 가능해진다.

△고위험 임신부 안전한 분만 환경 지원 = 고위험 임신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규 4개 및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신규 25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9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는 430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기저귀 지원 잔여 문자안내 = '저소득층 기저귀 교체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의 바우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바우처 잔액, 사용기한을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자가 직접 확인해야 했다.

△5가 혼합백신 국가예방접종 = 올해 6월 19일부터 여러 종류의 감염병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했다.

기존에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5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3가 혼합백신인 DTaP, IPV, Hib 백신을 각각 3회 접종했다.

그러나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은 접종횟수가 총 3회로 예방접종의 편의성이 높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여성근로자 경력단절 사유에 '결혼' 추가 추진

윤종필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사유에 결혼을 추가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4일 대표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경력단절의 사유로 임신·출산·육아를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결혼을 사유로 퇴사를 종용받는 경우가 많고,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17조의2의 제목을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에서 '경력단절의 예방 및 고용촉진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을 추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



주혜진 기자 hjjoo@

방하기 위해 인식개선, 사업주 대상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제공, 근로자 대상 상담 및 자문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종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지원방안을 확대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여성들이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약사 등 의료인에 준 경제적 이익 보고서 작성해야

내년부터 시행 ...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등 해당

내년 1월부터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 실행에 필요한 보고서의 항목과 양식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 제도는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선사인 액트(Sunshine Act)와 유사해 관련 업계에서 한국적 선사인 액트(K-sunshine Act)로 불린다.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에 대해 규제와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사후적 정책이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적극적 정보관리와 자정능력에 기반한 근본적 체질 개선에 초점을 둔 사전적 정책이 실시되는 것이다.

제약회사 등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양식에 맞춰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면 된다. 제약회사 등의 입장에서는 영업사원의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비윤리적 영업행위 우려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관계법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이라 면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의 투명화·개방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불명확함을 감소하고서라도 나아가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면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현장에서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2017년도 대한간호협회 연구용역사업 과제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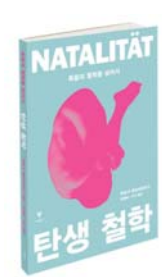
2017년도 대한간호협회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Table with 3 columns: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연구비. Includes details for nursing research projects and a budget of 3,000 million KRW.

- 연구기간: 2017년 9월 ~ 2017년 12월(4개월)
■ 신청자격: 간호학 및 간호교육학에 관한 전문가(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한함)
■ 제출기한: 2017년 9월 1일(금)
■ 제출서류: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연구제안서, 최근 3년간 연구실적 각 1부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서명날인 기재)
■ 제출처: 대한간호협회 교육국
* 전 화 : 02)2206-1914
* E-mail : eduson@koreanurse.or.kr

인간 탄생에 대한 근원적 사유 '탄생 철학'

루트거 뤼트케하우스 저 ... 공병혜·이선 옮김



인간 탄생에 대한 실존철학적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이 지배하는 인간 탄생 영역에 대한 근원적 사유의 단초가 될 줄 책이 나왔다.

'탄생 철학'은 인간 탄생의 철학적 의미를 묻는 책이다. 죽음과 유한한 인간에 대한 철학에서 벗어나 탄생 그 자체에 주목한다. '죽음의 철학을 넘어서'라는 부제가 붙었다.

저자는 프라이부르크대 명예교수이며, 소련기후어 집집 편찬자인 루트거 뤼트케하우스이다. 독일 하이델베르크대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공병혜 조선대 간호학과 교수와 프리드리히실러 예나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이선 씨가 번역했다.

이 책은 탄생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탄생과 원인 제공자와의 관계, 탄생과 잠재적으로 자신의 원인이 되는 타자들과의 관계 문제를 다룬다.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아우구스티누스, 칸트, 아렌트에 이르기까지 서양철학사를 포괄적으로 관통하는 탄생 철학의 핵심적 주제를 살펴보고 있다. 탄생을 존재론적이며 실존적으로, 탄생을 의해 발생하는 긴장 관계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저자는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탄생과 출산의 문제는 자연적 삶의 영역이 아니라 인위적 조작, 기술적 제도가 가능한 비자연적인 영역으로 이행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 죽음보다 탄생 자체가 중요한 실존적 물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생명권의 조차 선연적으로 반대하는 윤리적, 철학적 접근이 아닌 탄생 자체에 대한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사유를 제공하는 철학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

옮긴이들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탄생 철학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학사 / 219쪽 / 1만5000원) 정규숙 기자 kschung@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 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 대해 올해 상반기 기준 4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

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급 최고 금액은 3600만원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2009년 4월 도입된 이후 신고와 포상금 지급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1억여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33개 기관에서 31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3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1%를 차지해 내부종사자 신고가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혜진 기자 hjjoo@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옥수 인쇄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간호인력 해결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와 함께하세요!!
01 RNjob 홈페이지의 구인기관 등록 시 취업 우선 연계
02 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실무훈련 취업 시 간호사 1인당 훈련비 100만원(4주 기준) 지급
03 효율적인 간호인력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간호관리자 교육 직원소통 전략 및 갈등관리, 정부지원 제도 소개
0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예정)병원 간호인력 교육 변화된 의료환경 이해,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05 취업간호사 실습지도 표준화교육 최신 임상술기 및 표준화된 간호절차
06 권역센터
서울·강원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북 대전 충북·충남 경기
※ 대표전화 1522-1755로 연락주시면 중앙 및 권역센터 어디든 연결이 가능합니다.